

Kathryn Bomey, 202-573-2120, kbomey@pewtrusts.org

즉시 발표용

2021년 7월 15일

퓨자선신탁(Pew Charitable Trusts), 합의가 다시 미뤄진 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수산업 보조금 폐지 우선시 촉구

협정은 어류 개체군을 늘리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며 연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네바 퓨자선신탁은 오늘 WTO 회원국이 유해 수산업 보조금을 줄이는 것에 곧 합의할 것이라는 신중한 낙관론을 표명하며, 비록 협상단이 오늘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올해 말 합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응고지 오코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협상 의장인 산티아고 월스 콜롬비아 대사는 WTO 회원국이 11월 30일로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에 앞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주로 산업 어선을 위한 유해수산 보조금에 [연간 220억 달러](#)를 지출하며, 연료와 선박 건조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선박이 더 먼 바다로 나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조업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어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193개국이 UN 지속가능발전 목표(UN-SDG)를 채택했습니다. 그중 14번 목표는 해양 및 해양 자원을 보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각국은 수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불법 어업을 근절하며 2020년까지 파괴적인 어획 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해양 환경 보호, 동물 복지,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망, 국제 개발 등에 힘써 온 [180개 이상의 기관](#)이 14번 목표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WTO 회원국은 [이 시한을 넘겼습니다](#). 지난 3월 오코조-이웰라 사무총장이 취임한 후, WTO 회원국이 오늘 각료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퓨자선신탁의 유해 수산업 보조금 폐지 프로젝트 관리자인 이사벨 제러트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유해 수산업 보조금 삭감을 협상하기 시작한 지 20년이 흐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워졌습니다. WTO 회원국은 사무총장, 협상위원장, 전 세계 180개 이상의 기구에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각료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국은 올해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허점이 너무 많은 협정은 WTO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저해할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모든 유해 수산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WTO의 합의가 2050년까지 12.5%의 어류 생물량을 해양에 복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UC 산타바바라 대학교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WTO 협정문안은 아마도 같은 기간 동안 1.59%의 증가만을 [실현](#)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종 협정문에서는 정부가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어류 개체군을 해칠 수 있는 무책임한 관행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취약 개체군의 어획에 적용되는 유해 수산업 보조금은 이들이 회복하기 위한 기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WTO 수산업 보조금의 최종 합의는 개발도상국이 추가 시간을 들여 이 협정을 이행할 수 있는 전환 기간을 두어야 하지만 어떤 규정에도 영구적인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그러한 보조금이 수산 자원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유해 수산업 보조금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WTO 회원국은 야심 찬 지속가능성 목표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산 보조금 협정에 조속히 합의하여 궁극적으로 전 세계 수산업 및 어업계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퓨자선신탁은 지식의 힘으로 오늘날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ewtrusts.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